

'휴대전화 대출' 신종 사기 판친다

금전 미끼 개통시킨 뒤 '대포폰' 둔갑... 빚지고 범죄자 될 판

광주 두달간 10여명 피해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시킨 뒤 이를 '대포 폰'으로 둔갑시켜 돈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키는 신종 긴급대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휴대전화 대출'로도 불리는 이러한 수법을 통해 양산된 '대포 폰'은 납치·유괴·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북구에 사는 P(32)씨는 '급전대출'을 받기 위해 지난 5일 오후 2시께 모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출업자

에게 전화를 걸었다.

P씨의 전화를 받은 대출업체 직원은 P씨에게 전남대학교 후문 M편의 점 앞길에서 30대 남성을 만날 것을 지시했고, P씨는 이에 따라 30대로 보이는 남성을 만났다.

P씨는 이 남성의 요구대로 M편의 점 인근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70만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전화 한 대를 개설했다. P씨는 휴대전화를 담보로 이 남성으로부터 20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한 달 이내 대출금을 갚으면 휴대 전화를 되돌려준다는 조건이었다.

20일 뒤 P씨는 자신 앞으로 날라

온 휴대전화 요금고지서를 보고 경악했다.

무려 500만원의 사용요금에 청구된 것이다. 대출업자가 P씨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아이템 및 쿠폰 등을 구입하고 타인에게 긴급대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마구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대출업자는 잠적했고, P씨의 휴대전화는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해지된 상태다.

30일 광주 일선 경찰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긴급대출을 미끼로 한 휴대전화 사기사건 고소 건수는 10건이다. 피해금액도 한 사람당 20만~500만원.

피해자 상당수는 20만~500만원의 금전이 필요한 대학생 또는 실직자였다. 수십 만원 빌렸다가 수백 만원 빚더미에 앉고 범죄자가 될 판이 된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를 붙잡기도 쉽지 않다. 휴대전화 최초 가입자가 전부 피해자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이다.

광주 북부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포폰'을 이용해 유괴나 금융 사기 등에 이용하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할 땐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리기사들이 화났다

30일 광주시 북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서 열린 '광주지역 대리기사 전체 모임'에 참가한 대리기사들이 총파업 투표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광주 대리기사협회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모임에서 보험료 과다징수 취소 및 벌금제도 폐지 등을 대리운전 업체에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원, 키코 효력 정지 첫 가처분 결정

피해 기업들 줄소송 나설 듯

법원이 환해지 통화유선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키코 계약 자체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그간 다수의 중소기업이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관련 피해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더더기 소송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주식회사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유선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

안 관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각 회사와 은행이 원·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모나미 등이 엄청난 거래 손실을 봤고 남은 기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견되는데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계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계약 후 현저히 변경되고 이를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며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면 장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유선 상품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연합뉴스

허위 금융거래 자료 꾸며 지원금 가로챌 19명 적발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0일 업체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 자료를 꾸며 정부지원금을 가로챌 혐의(사기)로 모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이사 최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모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대표 18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2월 14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협력업체들이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낸 것처럼 꾸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7개 업체에 대한 지원금 4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이성휴기자 lsh@kwangju.co.kr

검찰이 선정한 '올해의 황당 사건'

영화 찍자더니 변태 성욕 욕심만 뇌물로 돌린 명품, 알고보니 짝퉁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서 올 한 해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영화에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들을 선정, 발표했다.

▷'영화찍자'며 변태성욕 채워 = '페티시즘'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최모(31)씨와 정모(35)씨는 나이트클럽을 돌며 영화촬영을 원하는 19~22세 여성 5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스튜디오를 빌려 가짜 오디오션을 벌인 뒤 여성들에게 상금으로부터 회초리로 맞는 무수리 연기를 하는데 촬영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중간에 포기하면 계약금(20만원)의 3배를 물어야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토록 했다.

피해 여성들은 각각 50~70대씩 종아리를 맞고 중간에 연기를 포기해 위약금까지 물었다.

▷뇌물로 짝퉁지갑 돌린 시의원 = 부산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에 후보로 나선 C(62)의원은 자신을 뽑아달라며 동료의원 22명에게 외제 명품가방과 지갑을 택배로 보냈다.

만약 명품선물이 진품이었다면 함께 액수가 2천만원에 달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C의원은 "모조품이라 가격이 얼마 되지 않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해 확인한 결과 함께 130만원 상당의 짝퉁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야' = A씨는 내연녀에게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10억원 정도 된다. 당첨금을 찾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잔액을 넘겨받고서 1천500만원을 썼다.

▷5살 딸에게 1억4천만원 절도 지시 = 제주에 사는 강모(33,여)씨는 지난 3월20일 정오께 제주 시내 은행에 들어가 다섯 살짜리 딸에게 VIP상담실에 들어가 철제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딸은 엄마가 시킨 대로 금고에서 100만원권 수표 100장과 50만원권 수표 83장 등 무려 1억4천만원어치를 들고 나왔다. 강씨는 돈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빠져나왔으나 CCTV(폐쇄회로TV)에 찍혀 구속됐다.

/연합뉴스

면 함께 액수가 2천만원에 달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C의원은 "모조품이라 가격이 얼마 되지 않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해 확인한 결과 함께 130만원 상당의 짝퉁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야' = A씨는 내연녀에게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10억원 정도 된다. 당첨금을 찾으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 잔액을 넘겨받고서 1천500만원을 썼다.

▷5살 딸에게 1억4천만원 절도 지시 = 제주에 사는 강모(33,여)씨는 지난 3월20일 정오께 제주 시내 은행에 들어가 다섯 살짜리 딸에게 VIP상담실에 들어가 철제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딸은 엄마가 시킨 대로 금고에서 100만원권 수표 100장과 50만원권 수표 83장 등 무려 1억4천만원어치를 들고 나왔다. 강씨는 돈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빠져나왔으나 CCTV(폐쇄회로TV)에 찍혀 구속됐다.

/연합뉴스

교과부 "5·18 누락 사과합니다"

우편향 논란을 촉발시킨 건국 60년 기념책자에서 5·18 민주항쟁 부분을 누락시켰다가 5·18 관련 단체의 항의를 받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과 표명과 함께 이를 시정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교과부로부터 최근 문제가 됐던 '기적의 역사' 교육자료에 5·18민주항쟁 등 민주발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누락된 것에 대해 사과와 함께 추후 현대사 교

육자료를 제작시 5·18민주항쟁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는 지난 10일 교과부에 '기적의 역사'에 5·18민주항쟁 내용이 누락된 것을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한편 교과부는 '기적의 역사'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관련 업무를 진행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유령 대학 개설 수십억 챙긴 교수 실형

국내에서 인터넷 온라인 대학을 설립한 뒤 미국 정부의 공인인가를 받은 대학인 것처럼 속여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대학교수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30일 인터넷상에 실체가 없는 '유령대학'을 미국의 온라인 종합대학으로 속여 거액의 수업료 등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황모(48)씨와 조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1년6월을 선고했다.

강진 모 대학 조교수인 황씨는 미국 퍼시픽에일대학교(PYU)의 총장으로, 조씨는 사무총장 행세를 하며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수강생 198명으로부터 수업료 등으로 19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692) 김중두



다 좋은 건국 60년 기념책자 KCC

(주) 금목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공방 : 061) 337-0571

갈 데 없어 세탁소서 자다 경찰서행

○하는 일 없 이 컴퓨터나 하고 빈둥댄다는 이유로 집에서 내쫓긴 20대가 평소 이용하던 세탁소에 들어가 잠을 자다 출근한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은 30일 새벽 광주시 남구 H(48)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침입, 하룻밤을 지낸 L(26·광주시 남구)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

○경찰조사결과 L씨는 며칠 전 집에서 내쫓겨 아버지가 일하러 간 사이에 잠자고 있던 세탁소 출입문 옆에 있던 쪽문을 통해 내실로 들어가 잠을 잤다는 것.

○경찰조사에서 L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려했는데 하룻 잠을 잤다"며 "물건을 훔치거나 피해를 준 것은 전혀 없다"고 선처를 호소.

/김철호기자 khh@kwangju.co.kr

교육대/서울대/연고대와 명문대 합격을 위한 재수생 전문 종합반 광주알뜰대학원의

재수생 선행학습반 / 예비고①②③년 교육대·서울대·연고대·명문대 목표반 안내

2008년 재수생 중심의 특성교육기관

대수능 선행 학습반 모집

- 4차시 기본과목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강 1월 2월 3월

반, 생, 수, 종

재수생 전체 수석 패거(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00군(S고)

교육대/서울대/연고대 명문대 목표반

1월 5월

1월 3월

재수생 전체 수석 패거(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00군(S고)

종합선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5월

1월 3월

재수생 전체 수석 패거(인문계) 표준점수 718점 박00군(S고)